

## 논평 : 行政團과 信仰團

신 행 철\*

우선 신앙권의 개념문제인데, 무엇을 신앙권으로 봤는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다. 신앙권이라는 것은 ‘신앙민’ 동일한 숭배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흠어져 사는 범위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본향당이 어느 지점에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집단 전체가 신앙권이라고 보고 있다. 본향당 神을 섬기는 것은 개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흠어져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하나는 신앙권을 이야기할 때 <가지가른당>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가지가른당>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본향당에 함께 묶어서 동일 신앙권으로 묶음으로써 사실과는 다른 현상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가지가른당>의 권역은 또 하나의 신앙권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한천동의 경우를 보면 한천동의 堂神은 두 군데인데 이 堂神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신앙권이 되지 않을까. <가지가른당>의 신앙권과의 관계에 대해 이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한천동 내에도 신앙권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신앙권이라는 것은 교과와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본향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본향당을 섬긴 사람이 어떻게 흠어져 있는가 하는 것으로 신앙권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에서 말하는 신앙권, 교육권, 시장권, 이런 권역 중에서 정치권이라 할 수 있는 행정권과 신앙권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 해주는 좋은 글로 생각한다.

\* 제주대